

補修教育履修時間 年 10時間 以上으로 再調整 評點制를 쉽게 理解하도록 時間制로 變更

齒科補修教育指針書 次期理事會에서 確定



齒協補修教育委員會는 지금까지 年 15評點 이상으로 된 치과의사보수교육 이수시간을 年 10시간이상으로 재조정하고 평점제도를「時間」으로 바꾸기로 했다.

지난달 29일 서울치대에서 丁東均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보수교육위원회는 지난 齒協정기 총회에서 현안과제로 대두된 보수교육이수 시간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한 결과 지방 및 개업회원들의 주위여건에 따라 醫療法 施行規則에 명시된 年 10시간이상으로 재조정하고 이수시간을 쉽게 이해토록 지금까지의 評點제도를「시간」으로 변경했다.

補修教育委는 이러한 年 10시간 이상의 이수시간

재조정에 따라 齒協종합학술대회 3시간, 支部 7시간, 분과학회 대학등 기타기관에 4시간등 모두 10시간을 배분했는데, 支部의 상한 이수시간을 7시간을 실시하되 3시간을 필수적으로 당해 지부에서 이수토록 했다.

補修教育委는 또 일반강좌의 경우 時間當「1시간」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 2시간은 1시간, 슬라이드 1제목은 1시간등 종전과 같이 그대로 실시키로 했다.

그런데 보수교육위원회의가 조정한 보수교육 이수가 年 10시간등 변경된「치과의사보수교육지침서」는 齒協이사회에서 최종확정하게 된다.